

01

기 조 발 제

내발적 발전과 사회적경제

박진도(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내발적 발전과 사회적경제

2013.10.17

박진도(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무엇이 문제인가 – 신자유주의의 뒷

• 불평등

• 실업

• 탐욕



Occupy Wall Street

We are the 99%



Occupy
Washington D.C.



2012.1 세계경제포럼(다보스)

고장 난 자본주의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

더 이상 경제성장, 수출증대만으로는 우리의 삶이 나아지지 않음

2001-2010년 국내총생산 2배, 수출 3배, 일인당 국민소득은 2배 증가
그러나 백성들의 삶은 더 나빠짐

- 1980-2011년 : 30대 재벌의 자산은 70배, 매출은 48배 증가
 - 5대 그룹의 매출액 비중 : 국내총생산 대비 201년 49.5%, 2010년 53.7%(친족 그룹까지 합치면 70.4%)
 - 2012년 5대 그룹 계열사가 차지하는 영업이익의 비중이 55.2%(삼성전자 29.8%, 현대차 14.5%)
- 국민의 삶은 오히려 악화: 중산층의 몰락과 빈곤층의 증가
 - 가계 저축율: 1990년대 초 20%에서 2012년 4.7%로 하락. 가계부채 급증
 - 중산층비율 하락과 빈곤층 상승(1990년의 7.5%에서 2010년 12.5%)
 - 농가: 실질소득 감소, 농촌 내 양극화 심화

재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지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강화

- 신자유주의의 프레임 혹은 이데올로기에 포획됨
 - 시장은 효율적이다: 자유무역과 세계화가 번영을 가져올 것이다/동시다발적 FTA, TPP 참여
 - GDP 중심의 성장지상주의, 경제제일주의의 지배: trickle-down
 - 인간은 이기적이다.
- 신자유주의는 잉여를 생산하는 시스템: 신자유주의의 피해자들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원인
 - 예, 스펙: 청년실업은 신자유주의의 가장 커다란 문제임. 그러나 청년실업의 원인이 스펙 탓으로 돌림
 - 국제경쟁력 있는 농업만이 살 길이다: 신자유주의 개방으로 망해가는 농민에게 국제경쟁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함.
- 콜린 크라우치: 글로벌 기업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빈 껌데기로 전락시키고, 국가권력을 수중에 장악하였기 때문에 국가에 기대를 걸어서는 안 된다
(왜 신자유주의는 죽지 않는가/ 포스트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지역의 위기

1. 신자유주의의 본질

- ◆ 신자유주의는 국가의 시장개입 배제 혹은 최소화 즉 경제자유화와 개방, 규제완화, 민영화, 재정지출의 삭감과 감세,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을 주장
- ◆ 그러나 신자유주의의 본질은 시장주의가 아니라 초국적 자본(초국적 기업과 금융자본)의, 초국적 자본에 의한, 초국적 자본을 위한 이데올로기.
- ◆ 50, 60년대의 자본주의 황금기가 노동자 계급과 자본가계급의 일정한 힘의 균형을 바탕으로 성립하였다면, 신자유주의는 자본가계급의 일방적 우위에 기초하여 초국적 자본의 이익에 복무하는 이데올로기
- ◆ 세계화란 초국적 자본의 경제활동 무대를 세계로 확장하기는 위한 이데올로기. 동시에 달러와 영어를 앞세운 미국화 즉 미국식 문화(제도)의 세계화

2. 세계화와 지역의 위기

- ◆ 지역의 불균형 발전과 쇠퇴
 - 지역경제는 세계시장에 통합되면 될 수록 불안정성은 증대하고, 지역경제의 희망성쇠가 초국적 자본에 의해 좌우됨
 - 세계화 특히 금융 세계화는 고도의 기업서비스 활동과 정보통신시설이 집중된 이른바 세계도시(예, 서울)를 필요로 하고, 세계도시는 세계경제의 지역적 네트워크로 존재하고, 세계경제의 지역적 네트워크에 포함된 일부 지역(예, 울산, 창원, 포항, 천안)은 성장하지만, 대다수의 지역은 배제됨
- ◆ 경쟁력이 약한 산업과 그러한 산업을 기반으로 한 지역경제의 붕괴
- ◆ 대형유통자본에 의한 자영업자의 몰락, 중소기업, 농촌경제의 쇠퇴
- ◆ 삶의 공간으로서의 지역을 위협: 주거, 보육, 교육, 보건의료, 환경, 문화 등에서 공공성을 후퇴시키고 사회서비스의 민영화와 시장화에 의해서 지역주민의 삶을 위협
- ◆ 신자유주의 분권화에 의해서 지역의 자립과 재정력 강화를 강요.
무분별한 기업유치와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난개발로 인한 지역환경의 위기와 지방재정의 위기, 주민의 삶의 위기를 초래

3. 세계화와 지역의 불균형

-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 ◆ 지역내 불균형의 심화: 충남경제 사례
 - 충남은 2000-2009년에 GRDP의 연평균증가율 9.1%로 전국 1위. 일인당 GRDP는 전국 2위.
 - 충남경제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본사를 수도권에 둔 재벌계 대기업에 의한 수출산업.
 - 그 결과 2010년 충남의 총요소 소득 40조원 가운데 16조원이 역외로 유출됨.
 - 충청남도 16개 시군 가운데 천안, 아산, 서산, 당진시 북부권의 4개 시가 충남 GRDP의 68.1%를 차지
 - 지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농림어업의 비중(2007년 기준)은 아산시(0.8%), 천안시(1.6%), 계룡시(2.6%), 당진군(4.8%), 서산시(4.7%), 청양군(34.4%), 부여군(29.8%), 서천군(17.9%), 보령시(17.5%), 태안군(17.1%), 예산군(15.6%), 논산시(14.1%), 공주시(12.9%), 홍성군(10.9%), 금산군(9.35), 연기군(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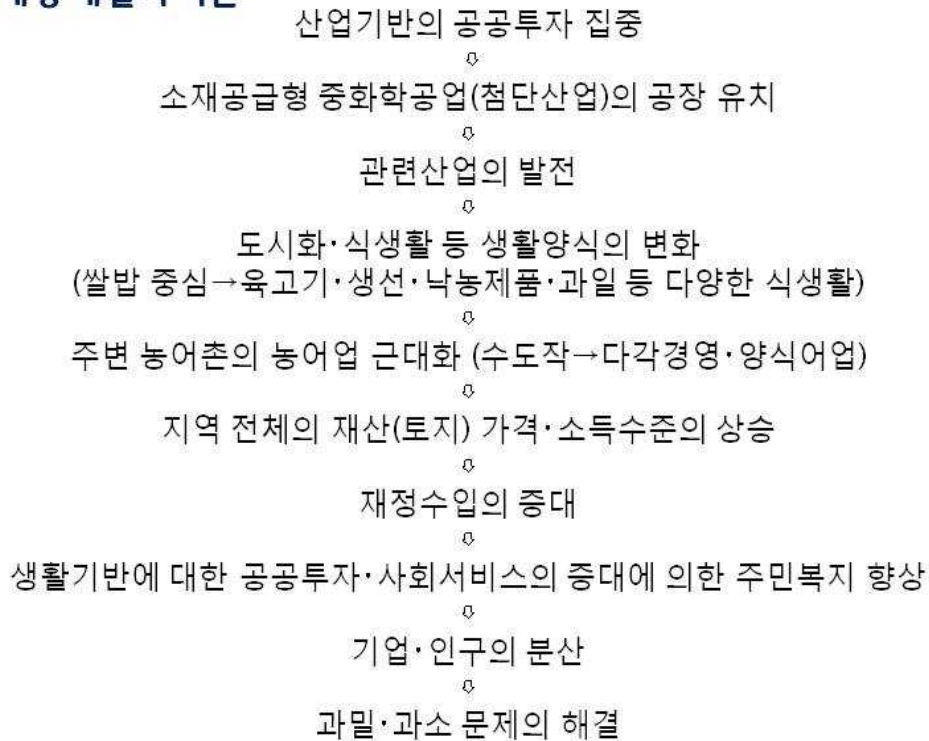
지역개발의 전략

1. 지역발전의 두 가지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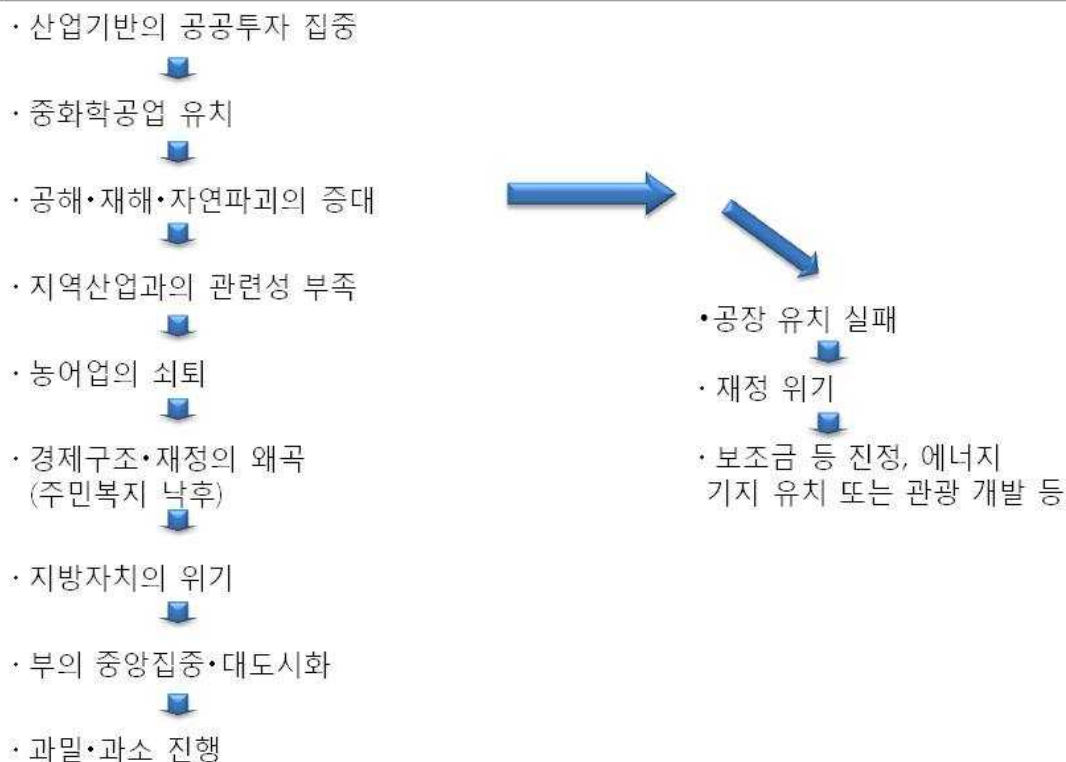
외생적(외래형) 개발 전략	비교 내용	내발적 발전 전략
- 선진지역과 비교한 경제, 기술, 사회, 문화적 낙후성	지역의 문제	- 지역발전에 참여하고 주도할 지역역량의 부족
- 외부로부터 추진	발전동력	- 원칙적으로 지역내부로부터 추진 - 지역외부와와의 관계 중시
- 중앙에 의한 하향식 개발	발전주체	- 지역주도의 상향식 발전 - 주민참가와 협동자치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의 파트너십
- 중앙정부에 의한 SOC 기반정비 - 보조금 및 조세감면 - 외부자본의 유치	발전전략	- 지역의 독특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발전의 성과가 최대한 지역 내에 보전되도록 함 - 외래자본의 주체적 활용
- 경제적 개발	발전목표	-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으로 통합발전, 주체역량 강화

2. 외래형 개발의 이론과 현실

□ 외래형 개발의 이론



□ 외래형 개발의 현실



○ 외래형 개발의 한계

- 기업유치전략의 한계: race to the bottom
- 중앙정부 의존형 개발의 한계: 중앙집권적 분산 재정시스템의 한계

○ 외래형 개발의 문제점

- 첫째, 지역의 쇠퇴, 즉 개발성과의 역외 유출
- 둘째, 종속적 개발, 즉 지역의 운명이 외부의 손에 맡겨지고 있다.
- 셋째, 왜곡된 개발, 즉 소수의 선택된 부문과 다수의 소외
- 넷째, 파괴적 개발, 즉 지역의 문화적 환경적 차별성(특성)이 상실되고 있다.
- 다섯째, 불균형 개발, 즉 외부자본 유치 매력에 따라 지역간 불균형 개발이 심화되고 있다. 거의 대부분의 지역은 외부자본을 유치할 매력이 없기 때문에 개발대상에서 소외된다.

3. 내발전 발전

○ 기본적인 문제 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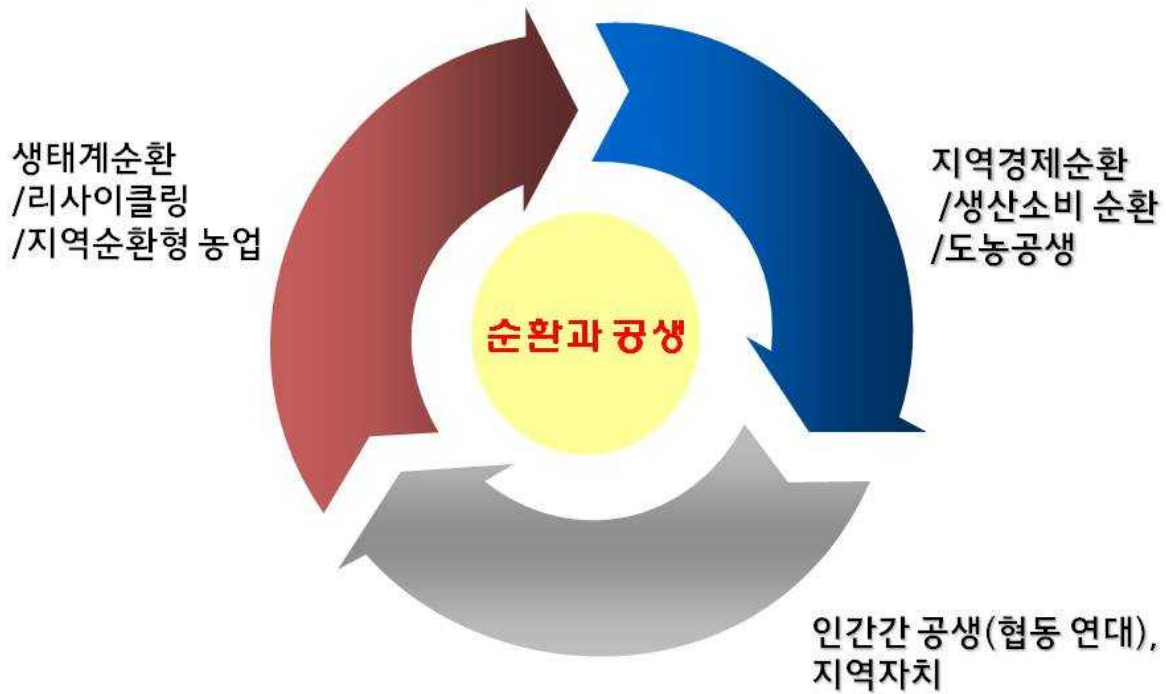
- 근대화론 비판
- 경제학 패러다임의 전환: 경제인 대신에 인간의 전인적 발전 추구
- 기본적 인권, 민주주의, 지역분권, 생태계 중시

첫째, 지역개발의 목표가 경제적 개발이 아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
즉, 경제, 사회, 환경적으로 통합적 발전(Integrated development)를 추구
예) 부탄의 GNH정책

둘째, 내발적 발전은 발전의 동력을 기본적으로 지역 내에서 구함(driven from within)
지역내의 자원(자연, 인적, 물적, 문화, 환경자원)의 최대활용에 의한 발전 추진,
발전 성과가 지역 내로 순환(보전), 귀속되도록 함

셋째, 지역주도의 상향식 발전, 주민참여와 협동·자치에 의한 발전을 중시함
다양한 주체의 파트너십과 네트워크에 의한 거버넌스 중시

내발적 지역 발전의 기본 원리



순환.공생의 지역 만들기 과제



참조: 부탄의 GNH정책

- **“Gross National Happiness is more important than Gross Domestic Product”.**
 - GNH Commission
- **4개의 전략**
 - 지속가능하고 평등한 사회경제발전
 - 생태보전과 그 회복
 - 문화의 보전(문화적 정체성)과 창달
 - good governance
- **9 개의 영역(domain)과 72개 지표**
 - 심리적 웰빙(Psychological well-being), 시간활용(Time Use), 공동체 활성화(Community Vitality), 문화(Culture), 건강(Health), 교육(Education), 자연생태(Ecology), 생활 수준(Living Standard), 거버넌스(Governance)

내발적 발전과 사회적 경제

1. 지역화와 내발전 발전

○ 지역화의 의의

- **초국적 자본이 지배하는 세계경제에 대한 대안적 경제창출**
 - 우리의 시야를 글로벌에서 지역(local)으로 전환. 지역민의 필요(needs)를 지역의 힘으로 충족할 수 있는 경제의 건설
- **시민의 힘에 의한 지역화(localization) 혹은 재지역화(relocalization)의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
 - 지역에서 일자리와 소득기회의 창출, 식량과 에너지의 자립, 지역 서비스의 공급
 - 우리나라의 협동조합 열풍

○ 지역화와 내발적 발전 그리고 사회적 경제

- **내발적 발전은 지역화를 실현하기 위한 발전전략**
 - 내발적 발전은 지역주도와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 자원과 지역 주체에 기초한 발전을 추구하고, 발전의 성과가 최대한 지역 내에 남도록 하는 발전 전략
- * 사회적 경제 조직은 기본적으로 지역사회 기반으로 성립하고 발전함.
 - 초국적 자본에 의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대응하여 지역화가 필요하고 사회적 경제는 이러한 지역화를 위한 유효한 경제조직
- * 사회적 경제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중시하고, 연대와 호혜의 원리에 의해 지역과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내발적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음

○ 지역의 재발견

- 지역은 주체적 존재
 - 지역은 주민들이 공동체적 일체감을 갖고 상호 연대해서 생활하는 공간
- 지역은 자립적 존재
 - 고용위기와 경제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서 지역경제가 경제발전의 새로운 단위로서 인식됨.
- 지역은 대안적(저항적) 존재
 - 신자유주의 글로벌 위기(경제, 자원, 환경위기의 융합)는 그 자체로는 해결책이 없음.
 - 지역에서의 실천으로부터 해결책을 모색

2. 사회적경제의 이해

○ 사회적경제 리턴즈

- 사회적경제는 19세기말 학문적으로는 (정치)경제학에 대한 비판으로, 실천적으로는 자본주의 모순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등장
- 1970년대 이후 복지국가의 위기 및 신자유주의 체계 하의 경제위기 속에서 그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됨
- 사회적 경제는 학문영역보다 실천영역에서 협동조합, 공제조합, 결사체, 민간단체 등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고, 1990년 이후에는 법과 정부정책에 기초한 다양한 사회적 경제조직(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커뮤니티비즈니스 등)이 나타나고 있음

○ 사회적 경제 리턴즈의 배경: 경제위기

• 1970 이후의 경제위기와 사회적 경제의 발전

- 구조적 실업과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와 복지국가의 위기 속에서 국가와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는 '제3섹터'로써 사회적 경제가 새롭게 재인식됨
-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응한 사회적 경제의 진화
 -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양극화, 실업과 빈곤, 사회적 배제를 심화시킴
 - 국가와 시장의 실패를 일시적으로 완화하거나 봉합하는 것으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을 인식함
 - 사회적 경제가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이나 사회서비스 제공에 머물 수는 없다는 인식이 확산됨
 -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대안적 존재로서 사회적 경제에 주목함

○ 사회적경제의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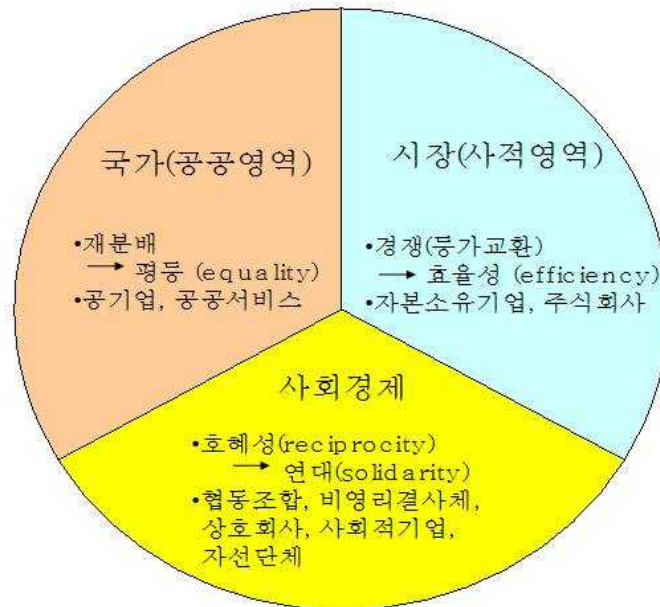
● Defourney

- ① 이윤창출보다 구성원이나 공공에 대한 공헌을 목적
 - ② 경영의 자율성
 - ③ 민주적 의사결정
 - ④ 수익의 배분에 있어서 자본보다는 사람과 노동을 중시하는
- 4개 원칙에 따른 이해당사자경제(stakeholder economy)

● 영국브리스톨시 사회적경제 정의

- It is not part of the Private(For-Profit) Sector
and is not part of the Public(Government) Sector
- The Voluntary Sector, The Non-Profit or Not-for-Profit Sector, The Third Sector, The Co-operative Sector, Community Business Sector

세가지 경제 중의 하나로서의 사회적 경제



출처 : Mike Lewis, Mapping the social economy in BC and ALBERTA towards a strategic approach, BC-Alberta Social Economy Research Alliance, 2006,p.2.

○ 사회적 경제의 영역

오늘날 사회적 경제는, 전통적 사회적 경제(ex.협동조합)와 새로운 사회적 경제(ex.사회적 기업 등)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됨

전통적 사회적 경제 조직

- 협동조합(소비자 협동조합, 생산자 또는 노동자 협동조합)과 공제조합처럼 단일계층(혹은 단일 이해관계자)로 이루어진 사회경제조직
- 예, 이탈리아 볼로냐 협동조합/ 스페인 몬드라곤 협동조합/ 퀘백의 데자르댕/ 뉴질랜드의 제스프리/ 네델란드의 그리너리/ 우리나라의 농협과 생협

새로운 사회적 경제 조직(다중이해관계자 조직)

- 1990년대 이후 나타난 조직으로서 구성원(조합원)에 대한 연대를 추구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적 기여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
- 각국별로 법적 공식조직으로 나타나기 시작함 예, 사회적 기업, 비영리조직(NPO), 커뮤니티 비즈니스 이탈리아의 사회적 협동조합, 퀘백의 연대협동조합

3.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

○ 협동조합은 사회적 경제의 일부, 그러나 갈등적 협력

- 전통적 협동조합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포섭됨
 -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의 하나의 기업형태
 - 경제적 이익과 규모확대에만 관심. 특히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협동조합의 경우. 우리나라의 농협이나 일부 생협도 여기에 포함됨.
- 사회적 경제 진영은 사회적 경제의 사회적 목적을 강조
 - 사회적 목적(지속 가능한 삶과 사회적 정의)의 실현이 시장가치에 뒤지지 않는다
 - 사회적 경제는 사회변화와 경제적 전환(경제적 민주화)을 위한 운동
 - 사회적 경제는 세계화에 의한 사회경제적 도전에 대한 실용적(pragmatic) 대응
 - 사회적 경제는 정부, 시장, 시민사회의 관계 재정립 추구

○협동조합진영의 변화

- 1980년 ICA 보고서 “서기 2000년의 협동조합”(레이드로 보고서): 세계적인 기아극복/ 인간적이고 생산적인 일자리 마련/ 보전자 사회 conserver society/ 협동조합 지역사회 건설
 - “ 도시인들에게 도시는 고독과 소외의 바다. 단지 가까이 살고 있다는 것 외에 그들을 묶어주는 것이 거의 없다.... 협동조합의 위대한 목표는 드넓은 도시 내에 수 많은 지역사회를 세우고 마을을 창조하는 것이어야 한다. 많은 사회경제적 필요와 접목하여 지역사회 창조라는 종합적인 효과를 발휘하게 될 협동조합 조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종류의 협동조합은 이웃 사람들이 안으로 눈을 돌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발견하게 하고 요구되는 서비스 활동을 시작하도록 하는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레이드로 보고서 5장)

- 전통적 협동조합: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 1995년 ICA 창설 100주년 기념대회에서 '지역사회 기여'(Concern for Community)를 명시적으로 언급
- 협동조합의 제7원칙: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 지역사회를 떠난 협동조합은 있을 수 없음: 협동조합은 지역사회에서 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생산자나 생활하는 소비자에 의해 조직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곳에 사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공통 욕구인 지역사회의 발전을 외면할 수 없음
 -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속 발전을 지향
- 협동조합이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는(갖게 된) 이유
 -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한 지역의 위기
 - 시장/ 무한경쟁: 양극화, 실업, 공공서비스의 민영화로 삶의 질 악화
 - 국가: 복지국가의 위기와 작은 정부, 재정위기 등으로 역할을 못함
 - >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의 다양한 요구를 협동조합적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함. 육아, 노인 돌봄, 교육, 보건, 의료 서비스를 비롯하여 안전한 먹거리 제공하는 농업과 식품산업, 주거, 문화 등 경제사회 전 영역에 걸쳐 활동함.
- => 자본주의를 넘어 대안적 사회의 가능성 모색. / 사회적 경제의 의의(시민사회)

4. 협동사회경제의 유형(농촌지역)

유형	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동사회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산물 생산, 가공 및 유통 로컬푸드, 공공급식, 공동체지원농업 소비자협동조합 지역산업 육성(향토산업, 6차산업 등) 재래시장 활성화 마을만들기 등 지역개발 귀농귀촌 및 도농교류 활성화
공공 서비스 및 복지 협동사회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돌봄(재가서비스, 경로당, 노인일자리 등) 청소년 및 아동 돌봄(방과후학교, 아동센터, 청 소년 문화센터 등) 취약계층지원(가사, 간병, 결식가정 급식지원 등) 여성문화센터, 다문화여성센터 등 사회교육 의료생협
일자리 창출 협동사회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체기업, 마을기업 등 자활사업 기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기업 등
지역 환경 및 문화 보전 협동사회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폐기물 및 재활용자원 관련 사업 환경 및 경관보전 관련 사업 에너지 자립 및 순환 지역 도서관, 각종 문화센터 생태건축 농촌관광 문화공연, 문화교육 생활체육
기타 협동사회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동조합경제의 조사,연구,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사업

5. 사회적경제와 지자체의 역할

○ 대원칙

- 지원은 하되 군림하지 않는다. “鑑査는 感謝다”.

○ 지자체의 역할

-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의 육성과 지원
- 사회적 경제를 위한 기금 조성 지원
- 사회적 경제를 위한 시장조성
- 사회적 경제를 위한 통계, 조사, 연구
- 사회적 경제 전문가 양성
- 사회적 경제 친화적인 정책